

다니엘 케이 다르코 박사, 감옥서신, 14회, 경계하라는 부름, 빌립보서 3:1-6

© 2024 댄 다르코 (Dan Darko) 및 테드 힐데브란트 (Ted Hildebrandt)

여기는 Dan Darko 박사와 그의 감옥 서신에 대한 강의 시리즈입니다.
이것은 세션 14, 경계하라는 부름, 빌립보서 3:1-6입니다.

감옥 서신에 대한 성경 연구 강의 시리즈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까지 빌립보서를 살펴보고, 여러분이 이 강의를 주의 깊게
따라오셨으면 합니다.

저는 이전 강의에서 멈춘 부분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자신의 구원을 이루는 방법에 대해 논의했고, 제가 Appeal to Shine이라고 부르는 주요 제목을 사용했습니다. 바울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자신의 구원을 이루는 방법에 대한 지시를 상기시켜 드렸고,
그가 앞서 그리스도에 대해 말한 것을 토대로 그 틀을 세웠고, 교회가 그
특성을 찾아내어 그것을 살아낼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지시 과정에서 그는 분명한 것들을 설명하면서, 그들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생각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요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매우 흥미로운 구절인 15절에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그
구절은 교회가 이 사악하고 비뚤어진 세상에서 흠 없고 무고함을 보이도록
노력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전 강의의 마지막 부분에서,
기억하시겠지만, 저는 바울이 교회가 본받을 순종의 표징을 보여준 두
가지 예를 어떻게 집어냈는지에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저는 당신과 디모데에 대해 논의했고,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했습니다.
디모데에 대해, 저는 바울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가 보통 간과하는 것이
바울이 동료들을 끌어내고, 그가 편지를 쓰는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하고
언급할 만한 자질을 명확하게 설명하는 뛰어난 능력이라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은 세상이 너무

부정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관찰하고 칭찬할 수 있는 것을 제 삶의 일부로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든 부정적인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합니다. 이제 바울이 디모데를 제외한 두 번째 예에 대해 말한 내용을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2장 마지막에 에바브로디도라는 이름으로 디모데를 설명합니다. 우리는 이 차트를 보여줌으로써 마지막 강의를 마쳤습니다. 이 차트는 에바브로디도가 이 세 가지 핵심 영역에서 논의될 것임을 보여줍니다.

군 복무에서의 동지애, 부상당한 군인의 건강, 그리고 복귀한 군인의 환영. 이 군인의 생각이 무엇인지 묻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글썄요, 그건 제 생각이 아닙니다. 바울 자신이 군사적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이 강의의 3장을 보면 바울이 군사적 언어와 운동적 언어를 습득하여 자신의 요점을 밝히는 데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에바프로디도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명을 걸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라고 부르시는 것을 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걸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순종하여 행했습니다.

봉사에서 동지애를 살펴보겠습니다. 더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2장 25 절의 이 구절을 읽어야 할 것 같습니다. 나는 나의 형제요, 나의 동역자요, 나의 사자요, 나의 필요를 돌보는 봉사자인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는 너희 모두를 그리워하고, 너희가 그가 병들었다는 말을 듣고 괴로워했습니다. 사실 그는 죽을 지경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셨고, 그에게만 자비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자비를 베푸셔서 내가 슬픔에 슬픔을 더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나는 그를 보내는 것을 더욱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할 것이고, 나도 덜 근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그를 모든 기쁨과 존귀함으로 영접하십시오. 그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 거의 죽을 뻔했고, 여러분이 나를 섬기는 데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전할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의 이러한 자질에 대해 자세히 설명할 것입니다.

바울이 이 동지애를 설명하는 것은 에바브로디도가 형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을 설득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강의를 통해 여러분이 설득되기를 바랍니다. 친족 언어는 바울이 기독교 관계의 틀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를 형제라고 부르는 것은 그들이 친형제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지만, 이 언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사용됩니다.

빌립보서 강의의 시작 부분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 언급한 이전 강의를 기억한다면, 하나님은 아버지입니다. 바울은 에바브로디도가 형제라고 말합니다. 그는 나에게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동료입니다. 그는 나와 나란히 일했습니다. 그는 나와 매우 밀접하게 일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를 잘 알기를 바랐고, 바울이 로마에 왔을 때 게으르지 않았다는 내용의 편지를 곧 그에게 보낼 것입니다. 그는 바울과 나란히 일했습니다. 바울은 그를 불렀습니다. 이 경험의 대부분이 그가 투옥되기 전의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바울은 그를 동료 군인이라고 부릅니다.

와, 바울의 흥미로운 이야기죠? 바울이 좋아했던 일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대의를 위해 싸우는 군인으로서의 자신의 일을 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우리가 십자군을 이해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람들의 머리에 복음을 두드리는 의미가 아니라, 예를 들어 에베소서에서 그는 영적 전투인 전투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친구들과 함께 모든 역경에 맞서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전하고, 복음을 알리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노력합니다. 에바프로디도는 그 전장에서 동료 군인이었습니다. 그는 사도이자 메신저였습니다.

그는 교회가 로마에서 바울을 돕기 위해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사실 자신이 자신의 일을 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에게 충실한 종교적 조수가 되어 자신의 일을 했습니다.

그는 동지입니다. 그는 빌립보와 나머지 로마 제국의 뒤틀리고 어두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알리기 위한 싸움에서 동지입니다. 에바프로디토스, 바울은 그의 건강을 언급하고, 바울은 실제로 부상당한 군인의 이미지로 그의 건강을 설명합니다.

여기서 몇 가지 사항에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걱정 대해 괴로워합니다. 에바프로디토스 자신도 실제로 괴로워하고 있으며, 사람들은 그의 건강에 대해 매우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폴은 그의 병이 너무 심해서 거의 죽을 뻔했다고 말합니다. 미국에 살고 있다면 이 이야기를 듣는 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치명적인 질병에 대해서만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이번 로마 제국에서는 쉽게 치료할 수 있지만 여전히 그를 죽일 수 있는 기본적인 질병일 수 있습니다. 그 남자는 거의 죽을 지경까지 고통을 겪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바울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지정된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걸었습니다.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일을 하려는 단 하나의 마음을 가진 순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목숨이 걸려 있는 지점까지도 말입니다.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본보기로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바울은 에바프로디토스도 본보기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까지 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에바프로디토스는 그의 목숨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는 죽음을 의미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일, 즉 바울과 함께 사역의 최전선에서 봉사하는 일에 순종하기 위해 겪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셨다고 말합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많이 공유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가나의 작은 마을에서 자랐습니다. 제 마을은 17마일 떨어져 있었습니다.

우리 마을에서 가장 가까운 병원은 17마일 떨어져 있었습니다. 지금 유럽과 미국, 특히 미국에서 살면서, 여러분이 클리닉이라고 부르는 것은 제가 당시 병원이라고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만큼 건강 시스템이 약했습니다.

우리 마을에 누군가가 아플 때, 때로는 뱀에게 물렸을 때, 우리가 병원에도착하기 전에 그 사람이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교통수단이 없었고, 당시에는 도로가 나빴기 때문입니다. 다행히도 도로는 이제 좋고, 마을에는 불빛이 있습니다.

기독교 선교사와 기독교 일꾼들은 이 최전선에서 큰 고통을 겪습니다. 가끔 그곳에서 사역할 기회가 생기면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만나야 했고, 그들에게는 선택권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도움을 받으려면 지역 주술사에게 연락하거나, 기다리다가 죽는 것입니다.

두 번째 드문 선택은 길가에서 기다리며 병원으로 가는 방향으로 교통수단이 오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을의 기독교인들은 신이 기도할 때 병자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는다면, 이교도와 주술사들에게 신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조롱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마도 당신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일에 왜 그렇게 열정적인지 단서를 얻고 있을 것입니다.

에바프로디투스, 일선 직원. 에바프로디투스는 1세기에 로마에서 병을 앓았습니다. 유명한 신사나 건강 치료를 위한 장소는 아스클레피오스 신사입니다.

시스템에 엔터리 의사가 있을지 몰라도, 건강 상태가 어떻든 이교도적인 어떤 형태로든 타협하지 않고는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 폴은 자신의 생명을 걸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와 나란히 봉사했습니다.

그의 병은 그를 거의 죽일 뻔했지만, 이것은 찬양 보고서입니다. 아마도 제가 방금 공유한 이야기를 들려주기 전까지는 제가 그 구절을 읽었을 때의 제 감정을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에바프로디토스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들은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습니다.

그들은 이 충실한 군인의 삶에 개입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자신을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교회는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대의에 순종하여 자신의 삶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때에 그에게 실현하실 준비가 되어 계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운 시기를 겪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제안하는 것은 그게 아니지만, 바울이 우리의 주의를 끌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교 선교 사업의 가장 어려운 상황이며, 세상이 우리가 믿는 신을 조롱할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는 것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신은 충실한 동지 에바프로디토스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순종의 행위. 때때로 순종의 행위는 삶에서 어려운 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고통 없는 기독교를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의 추종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고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한 사람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고통은 우리 이야기의 일부이지만, 하느님은 어려운 시기에도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재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주제를 생각할 때 시편 23편 4절을 좋아합니다. 그 구절은 “내가 죽음의 그늘 골짜기를 건너라도, 예, 내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때를 겪을 때에도 악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어려운 시기를 겪지 않을 수도 있지만, 가장 어려운 때에도 당신의 존재가 나와 함께합니다.

그게 위로입니다. 때때로 그는 기적적으로 개입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셨다고 말합니다.

위대한 신의 개입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이 사람을 위해 그는 당신에게 올 것이고, 나는 당신이 그를 열린 팔로 환영하기를 바랍니다. 그는 부상당한 군인처럼 당신에게 옵니다.

그는 모든 싸움을 싸웠습니다. 그는 복음을 위해 싸웠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위해 싸웠습니다. 모두 그리스도께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당신에게 오고 있습니다. 그는 내 편지를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그를 받아주세요.

당신이 편지를 전달하는 사람이라고 상상해보세요. 당신은 이것이 당신에 대해 말해지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이것은 당신에 대한 진짜 이야기이지만, 또한 당신에 대해 말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을 아주 잘 아는 교회에 그것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태도와 정신이 어떻게 상상해 보세요. 교회가 이 편지를 받을 때, 그리고 그들이 당신에게 어떻게 반응하고 응답할지 상상해 보세요.

하지만 바울은 아무것도 당연하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여전히 그들에게 이 사람을 환영해 달라고 호소하고 싶어합니다. 그는 주님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환영받아야 합니다.

모든 기쁨으로. 그는 명예롭게 맞이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군대에서 명예롭게 복무했고, 그것은 명예롭고 명예로운 전역입니다.

바울의 입으로 표현한다면, 이 사람 에바프로디토스는 존경받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는 모든 기쁨으로 맞이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는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는 흉터를 드러낸 군인으로 돌아온다. 그는 자신의 삶을 걸고 도박을 한 사람으로 돌아온다. 사실, 29절은,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모든 기쁨과 존귀함으로 그를 영접하라.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존경하십시오. 그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 거의 죽었습니다. 바울은 30절에서 그가 당신의 봉사에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는 2장을 이렇게 끝맺습니다. 나는 당신을 연합으로 부르고, 당신이 이 연합을 온전히 유지할 수 있는 사고방식을 요구합니다.

그리스도는 그 사고방식의 모델입니다. 그것은 겸손과 순종의 사고방식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불순종 안에서 행하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이것의 한 예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합당한 행동을 보이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한 사람들의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는 디모데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강의의 시작 부분에서 그는 여러분에게 에바프로디토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순종하며 걸었고, 바울과 나란히 일하면서 목숨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3장으로 넘어가는데, 바울은 제가

서론에서 앞서 언급했던 몇 가지 진술을 실제로 할 것이고, 학자들에게 몇 가지 의문을 제기할 것입니다.

3장은 이어서 빠르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형제들은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여러분에게도 같은 글을 씁니다. 저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안전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에게 안전합니다. 그 전 구절이 실제로 그 전 두 구절에서 그들에게 요청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는 그들에게 에바브로디도를 모든 기쁨으로 영접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는 그들에게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2절에서 개들을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들에게 몇 가지에 대해 경고합니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우리가 육체로 자랑할 것이 있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이제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또 다른 예는 저, 풀이 될 것입니다. 저, 다르코, 풀이 아닙니다. 풀은 그들이 따라야 할 또 다른 예로서 자신을 보여줄 것입니다.

하지만 세부 사항을 살펴보기 전에 3장의 시작 부분에 있는 몇 가지 기본적인 문제를 다루어 보겠습니다. 3장은 종종 마지막으로 번역되는 전환 진술로 시작합니다. 그 특정한 경우에, 전환 진술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전환 진술이 아닐 수도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번역된 단어입니다. 그리스어 단어는 문자 그대로 나머지, 남은 것 또는 다른 것으로 번역됩니다. 실제로는 결론을 의미하는 *finally*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또는 우리가 지금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sincerity*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멈추고, 여기서 계속할 것입니다.

제가 읽은 바에 따르면, 그 특정 구절을 실제로 읽어보는 게 좋을 듯합니다. 그 두 단어는 2장의 끝과 1장, 3장의 시작을 연결하는 전환점이나 실마리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마지막으로 번역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들 중 일부는 빌립보서가 실제로 두 글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마침내 3장 1절에서 편지를 끝냈다고 말한 때입니다. 그래서 3장 2절은 완전히 다른 편지를 시작합니다. 서론에서 말했듯이 저는 그 반대를 주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서론을 잊으셨다면 제가 재빨리 언급한 몇 가지 사항을 지적하겠습니다. 3장 1절과 3장 2절 사이의 갑작스러운 전환이 종종 두 편지가 구분되어 있다는 증거로 인용된다는 사실에 주의를 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현대 터키의 주요 교회 역사가인 스미르나 주교를 언급합니다.

바울이 요한과 실제로 동시대인이었을 때, 폴리카르푸스는 바울이 빌립보에게 보낸 편지를 알고 있다고 썼고, 그는 복수형 글자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오, 사실, 3장 1절은 마지막으로 끝난다고 번역되어야 하고, 3장 2절은 다른 글자를 이어가고, 누군가가 그것들을 조각해 낸다고 말합니다. 폴리카르푸스는 이것이 두 글자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것이 빌립보서가 한 글자가 아닌 이유입니다.

저는 과거, 아마도 10년 정도 전에 제가 읽은 빌립보서에 대한 주석에서 학자들이 그 주장과 점점 더 거리를 두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움직이지 않는 주장이 몇 가지 있습니다. 저는 NT Wright가 자유주의자들이 생각을 멈췄다고 말한 것을 인용하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저 성경을 불신하고 싫어하기 때문에, 논증이 없더라도, 어쨌든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제가 빌립보서

서론에서 제시한 논증이 이 맥락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알고 싶어합니다. 이 시험을 완성하기 위해 무언가가 도입되었다는 것을 뒷받침할 내부 증거는 없습니다.

언제든지 평행하게 달리고 있는 두 글자가 한 지점에서 합쳐졌다는 것을 뒷받침할 실제 증거는 없습니다. 분할을 요구하는 이론은 실제로 우리가 규율 감소 비판에서 부르는 것과 모순되는데, 여기서 우리는 편집자가 테스트를 편집하고 조각하는 방법을 관찰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 테스트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정확하다면 편집자가 상황을 매끄럽게 처리하고 그대로 두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고대 세계에서 그러한 전환이 요점을 만들기 위해 이루어질 수 있는 수사학적 메커니즘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그것을 최종적으로 번역하든, 앞으로 3장 1절을 시작으로 번역하든, 3장 1절을 2장의 끝과 3장의 시작을 연결하는 실마리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바뀔 때, 그는 매우 날카로운 어조로 나올 것입니다.

네, 편지의 시작 부분과는 다르지만, 바울이 강력한 수사적 힘으로 주의를 끌기 때문에 특이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영어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다른 그리스어를 나란히 써서 다시 한번 용서해 주십시오. 하지만 영어로 볼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그 단어는, behold, watch out, 또는 look out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ESV는 개들을 조심하고, 악한 자들을 조심하고, 살을 훼손하는 자들을 조심한다고 번역했습니다. 바울은 2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는 모든 일체감과 순종,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가진 후에 강력한 경고를 발할 필요성에 대해 매우 강하게 느낍니다. 그리스어는, 그리스어를 읽고 제가 철판에 쓴 것을 보면, 그것이 어떻게 운율을 이루는지 알 수 있습니다.

lookout을 번역하는 명령형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그리고 개, 악행자, 절단을 의미하는 다른 단어가 같은 글자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세요.

그리고 거의 운율이 맞습니다. 이것은 그가 교회가 경계하라는 이 부름에 나서도록 그리스어로 제시하는 강력한 수사학적 힘입니다.

바울이 경계를 촉구하면서 그는 실제로 교회의 주의를 이러한 잠재적 위협으로 이끌 것입니다. 이러한 잠재적 위협은 할례, 안식일, 모세 율법 전체의 준수와 같은 율법의 행위를 장려하는 순회 유대인 선교사일 수 있으며, 이는 우리가 바울의 가장 큰 문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라고 설명합니다.

그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무엇일까요? 문제는 이것입니다. 기독교는 유대인 운동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초기 추종자 대부분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예수는 모든 유대인 추종자들을 부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유대인이라면, 당신도 뭔가를 알고 있을 겁니다. 당신은 또한 메시아와 그 모든 것에 대해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이 언약은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 17장에서 매우 명확하게 바로잡혔습니다. 할례는 언약의 표시, 매우 중요한 표시입니다. 어떻게 누군가가 들어와서 메시아가 왔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들은 메시아를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메시아를 따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제 말은, 만약 당신이 유대인이라면, 어떤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큰 문제였습니다.

그게 바로 바울의 과거 문제였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그는 실제로 국경을 넘나드는 이 예수 운동 의제에 대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도 그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 선교사들이 이것을 소개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 넓은 교회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세스 실바는 실제로 더 넓은 교회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회가 온다. 그들은 교회에 들어와서 빌립보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싶어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도시에 강력한 유대인 기반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울이 유대교나 유대교 법률주의에 대한 논쟁을 제기하지 않고, 그의 주된 관심사는 교회에 대한 잠재적 위협이라는 것이다. 그러니 2절로 가서 바울의 지시를 다시 살펴보자.

그리고 나는 읽었어, 개를 조심해. 악한 자를 조심해. 살을 훼손하는 자를 조심해.

개를 조심하세요. 와우. 반려견이 있다면, 아마 "오, 내 개, 내 개가 좋아"라고 말했을 거예요.

하지만 잠깐만요, 폴이 여기서 개를 사용한 방식은 칭찬이 아닙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사악한 일꾼들을 조심하세요.

조심하고, 경계하세요. 그리고 계속해서, 절단을 조심하세요. 그리고 당신은 아마 내가 그것을 절단이라고 부르는 것을 알아차릴 것입니다. 당신의 성경은 육체의 절단자라고 말하지만, 그리스어 단어는 실제로 절단이기 때문입니다.

할례를 강조하는 사람들에 대한 수사적 장난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알다시피, 그들이 실제로 하는 일은, 사람들의 포피를 잘라내고, 살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훼손입니다.

그 언어는 그가 뒤집는 것이고, 우리는 영어로 의미를 알아내기 위해 뒤집고 영어 독자에게 의미를 알아내기 위해 *flesh*라는 단어를 제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 구절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특히 바울이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것을 감안할 때, 이 경계에 대한 부름이 무엇을 수반하는지 설명하려고 하겠습니다.

주의해야 할 개는 누구인가? 칭찬의 표현이 아니다. 폄하의 표현이다. 개는 혐오감을 느꼈고, 때로는 청소부로 여겨졌다.

개와 마찬가지로, 이 네 가지 바늘땀은 원치 않는 곳에 침입할 가능성이 큼니다. 개에 대한 고대 개념은 세계의 개에 대한 우리의 개념이 아닙니다. 서양 세계에서는, 오늘날 세계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나라에 가면 개는 고대인들이 개를 대하는 방식으로 대우받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식료품점에 가면, 미국에서 제가 겪은 몇 가지 놀라운 일을 말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한 것처럼요.

미국에서의 초기 경험에서 가장 큰 놀라움 중 하나는 시리얼을 사기 위해 식료품점에 가는 것입니다. 먼저 시리얼 통로에 갔는데, 통로 전체가 시리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곳에서 가장 큰 문제는 시리얼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통로를 건다가 시리얼 포장처럼 보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세션을 보았는데, 전부 개 사료였어요. 인상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미국의 개들은 축복받았지만, 그들은 그것을 모릅니다. 고대 세계의 개들, 아프리카의 일부 지역, 아시아의 일부 지역에서는 고대인들처럼 대우받았습니다. 그들은 대우받았습니다. 때때로 그들은 그들을 사냥이나 집을 지키는 데만 사용했기 때문에, 사람들을 겁주어 쫓아내거나 집에 침입하려는 사람을 물려고 훈련시켰지만, 그들은 결코 그런 보완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다.

개와 관련된 이미지 중 하나는 그들이 원하지 않는 공간에 침입하려는 능력과 욕구입니다. 그들은 그냥 옵니다. 그것은 우리가 미국에서 개를 훈련하는 방식과 그들이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과는 매우 다릅니다.

그들은 항상 우리를 우아하게 맞이합니다. 그것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 그러니, 그런 용어로 여기서 언급하는 개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이 거짓 가르침을 가져오고 이 유대적 요소를 가져오는 자들은 실제로 개라고 말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들을 조심하기를 바랍니다. 경계하십시오.

조심하세요. 특정 시편에서 개 이미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너무 많은 예를 들진 않겠습니다.

특히 시편 59편에서 개 이미지의 개념이 나옵니다. 매일 저녁 그들이 옵니다. 이것은 적과 악행자를 말합니다.

그들은 돌아와서 개처럼 울부짖으며 도시를 배회합니다. 개에 대한 이미지를 얻으십니까? 같은 시편에서 다른 이미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매일 저녁, 그들은 돌아온다. 같은 줄로, 개처럼 울부짖으며, 도시를 배회한다. 그들은 음식을 찾아 헤매고, 배부르지 않으면 으르렁거린다.

아시죠, 저는 16절을 거기에 몰래 넣었어요. 제가 좋아해서요. 악한 자들이 개처럼 오는 방식이거든요. 하지만 16절은 "하지만 저는 당신의 힘을 노래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나는 아침에 당신의 변함없는 사랑을 큰 소리로 노래할 것입니다 . 당신은 나에게 요새와 고난의 날에 피난처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가장 예상하지 못할 때 개들이 들어오는 개념.

그 개들을 조심하세요. 바울은 이 위험한 침입자들을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 그리고 그는 악한 일꾼들을 언급했는데, 아마도 그들의 사악한 동기를 암시한 것 같습니다.

또는 그들의 사악한 동기와 그 동기가 실행될 때의 결과가 결합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사악합니다. 이는 이들이 내부자가 아닐 수도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들은 사람입니다, 폴. 폴이 사람들을 사악하다고 낙인찍을 때, 그는 실제로 그들을 크게 악마화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그가 언급할 사람들이 아니었고, 그가 교회에서 형제 자매라고 부를 사람들의 일부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 가르침을 가지고 들어와 문제를 일으키는 외부인들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을 막는 방화벽을 구축하세요.

방화벽은 순종에 뿌리를 두어야 합니다. 곧 그는 2장에서 언급한 그리스도 시험이나 찬송가에서 제기한 주제, 즉 교만함 대신 겸손함을 언급할 것입니다. 그는 조심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절단이기 때문에, 알다시피, 그들은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으려면 할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그들을 비판하며 그것이 옳은 일이 아니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들의 육신은 하나님이 찾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이 이방인에게 전한 메시지와 이방인에게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할례가 필요하다면 그것은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요점을 계속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읽었습니다. 3절부터 조심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할례당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육체를 훼손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사실상 참된 할례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며 육체에 신뢰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참된 할례입니다. 그들은 육체를 훼손하는 자들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무엇을 하는지 이해하십니까? 그는 가능한 최악의 형태로 그들을 고발하기 위해 수사적 패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참된 할례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 개념은 초기 교회가 할례와 관련된 이러한 문제들 중 일부에 대해 얼마나 많은 고민과 씨름을 했는지 생각해보기 전까지는 당신에게 그다지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과 11장에서 베드로는 환상을 보고 고넬료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자신도 주저했습니다. 베드로 자신은 하나님께서 그를 비유대인에게 보내실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 주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셨음에도 불구하고요. 하지만 그 대가로 베드로는 이런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그들에게도 그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의 권능이 임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서 일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우리는 예루살렘 공의회에 문제를 제기할 또 다른 상황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그것에 대해 읽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많은 토론이 있는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초기에 여러분 가운데서 택하심을 받으셨음을 압니다. 그것은 내 입으로 이방인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증거하셨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는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런 차별도 두지 아니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우리 조상과 우리가 감당할 수 없었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매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어째서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들은 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한 것처럼,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지적인 요점은, 누가 기록한 대로, 사도행전에서 성령의 임재는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의 구원을 이방인에게도 접근 가능하게 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이방인도 포함됩니다.

바울의 요점은, 우리, 참된 할례는 주로 빌립보에 있는 이방인 회중에게 말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하는 참된 할례를 경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또한 할례를 자랑하지 않고, 율법을 순종하지 않고, 유대교도들이 내놓을 만한 어떤 것도 자랑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합니다. 그리고 참된 할례는 그리스어로는 설득당했다는 뜻인데, 영어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번역자들은 확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선호할 것입니다. 그들은 육체에 설득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육체가 어느 정도 연약함과 약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가 실제로 추진하거나 자랑할 만한 것이라고 설득되지 않습니다.

참된 할례를 받은 자들은 먼저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합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육신에 자신감이 없습니다. 와우.

바울이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세요. 그리고 저는 바울 신학의 중요한 부분을 상기시켜드립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동체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함께 일할 때 그는 영의 교제라고 부를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그가 당신을 고발하는 육신의 일과 종종 대조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그러나 나는 영으로 행하라"고 말하는 예 중 하나를 들겠습니다. 그러면 육신의 욕망을 만족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육신의 욕망은 영에 거스르고 영의 욕망은 육신에 거스르기 때문입니다.

이것들은 서로 대적입니다. 이는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영의 인도를 받는다면,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이제 육체의 일은 분명합니다. 음행, 더러움, 호색,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음, 분쟁, 시기, 분노, 당파심, 분열, 분열, 시기, 술 취함, 흥청거림, 그리고 이와 같은 모든 것들입니다. 전에 경고한 것처럼, 나는 여러분에게 경고합니다. 보는 것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대조를 보세요. 22. 하지만 영의 열매는 영이 역사하는 자들이 자연스럽게 이 열매를 맺습니다. 영의 열매는 사랑, 기쁨, 평화, 오래 참음, 친절, 착함, 성실, 온유, 자제입니다.

목격에 반대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자들은 육체를 그 정욕과 욕망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빌립보서로 돌아가서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는 영으로 경배하는 할례를 받은 자들입니다.

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누리세요. 네.

그리고 육체에 신뢰하지 마십시오. 프랭크 틸먼이 말했듯이, 3절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이 시대가 도래했고 마음의 할례가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가는 데 중요한 자격이라는 것입니다. 육체적 할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와우. 바로 이 틀에서, 이 점에 대해 바울은 몇 가지 매우 중요한 진술을 할 것입니다: 절단, 개, 그들의 육체의 영광.

그러나 4절에서 바울은, 비록 내가 육신을 신뢰할 만한 이유가 있지만, 다른 사람이 육신을 신뢰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렇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팔일째에 할례를 받았고, 벤-샤밧

지파에 속했으며, 율법으로는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이었고, 열심으로는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의 의로움으로는 교회를 박해하는 자였고, 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손해로 여겼습니다. 참으로, 나는 모든 것을 손해로 여깁니다. 와우.

바울은 이제, 이 개들과 훼손하는 자들, 이 악한 일꾼들 대신에, 참된 할례자 들은 하나님과 강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 사실,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고, 영으로 경배하고, 육신에 대한 자신감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가 와서 육신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고 말한다면, 바울이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바울은 자신의 신임장을 계속 말합니다. 바울은 자랑할 것이 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몇 가지 특권을 받았습니다. 그가 자랑할 만한 모든 근거를 제공해야 할 것들이 있지만, 그는 육체로 자랑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훈련으로 얻은 특권과 것들이 있습니다.

그는 그것들을 자랑할 모든 이유가 있어야 하지만, 그는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내가 여덟째 날에 할례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유대인의 관습이며, 유대인이 여덟째 날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언약입니다.

하지만 이때는 유대인들이 사방으로 흩어지고, 이방인의 영향이 너무 많아서 유대인이 할례를 받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었습니다. 할례를 하려는 시도는 있겠지만, 반드시 여덟째 날에 할례를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제 경우에는 부모가 올바르게 했다고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바로잡는 법규나 규정을 이행합니다. 나는 여덟째 날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나는 그 요구 사항을 충족했습니다.

나는 그것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자랑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유대인이고,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입니다.

와우. 그 표현은 우리에게 생각할 거리를 줍니다. 바울이 “나는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이다”라고 말할 때 무슨 뜻일까요? 대부분 유대인이 아람어를 사용하는 상황에서 그가 히브리어 악센트로 히브리어를 말한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그는 모든 기준에서 자신이 진정한 유대인이라고 말하고, 다시 말해 그는 이 사람이 진정한 유대인이라는 데는 전혀 의의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계층에서 왔다는 뜻인가요?

학자들은 그것을 반대로 돌릴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가 “나는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이다”라고 말할 때,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히브리인으로서의 모든 권리와 지위, 국가적 정체성, 종교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거기에 포함해서, 저는 히브리어 악센트로 히브리어를 합니다. 저는 당신의 경험과 당신이 이 강의에서 우리를 따라하는 곳에 대해 모릅니다. 당신이 영국에 살고 있다면, 당신은 여왕의 영어가 표준이라는 것을 저와 함께 이해하실 겁니다.

누군가가 코크니를 말한다면, 우리는 실제로 그 사람을 무식하고 교양이 없다고 무시합니다.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여전히 귀족 계급 제도가 존재하고 무엇이 접근 권한을 주는지 인정하고 싶지 않은 문화권에서. 여왕의 악센트로 영어를 말하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바울은 그보다 더 나았다. 그는 히브리어를 말하는 진정한 유대인이었고, 아마도 정통하고 분명한 히브리어 악센트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자랑할 것이 있었다.

아무도 당신의 악센트가 문제가 있다고 말해주지 않았다면 당신은 이것을 감사하게 여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강의를 따라가다 보면, 당신은 아마도 제 악센트가 어느 정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제게 그 점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쨌든 이 강의를 계속 따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 고향에서도 억양이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상기시키기 때문입니다. 글썄요, 폴은 히브리어를 말할 때 억양이 없습니다.

그는 그것에 대해 자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실제로 받은 특권 때문에 베냐민 지파에서 왔다고 말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매우 중요한 지파입니다. 이 지파는 이 지파에서 온 사람이 자랑할 만한 근거가 있습니다.

나이지리아에서 온 당신이 "나는 이그보족이야"라고 말한다면, 그리고 때때로 당신은 당신이 상대하는 다른 부족 집단에 따라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말한다면. 내가 온 가나에서 온 당신이 "내 이름은 다르코냐"라고 말한다면, 당신이 이해하지 못한다면, 나는 아칸족이야, 나는 내가 가장 존경받는 부족에서 왔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으며, 그것에 호소하려면, 당신은 나를 존중해야 합니다. 그런데, 폴이 우리 입장이었다면 그는 그것을 헛소리라고 했을 것이라고 내 친구들에게 가장 먼저 말한 사람은 나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자유의 땅이자 용감한 자의 고향인 미국에서는 이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는 제가 다른 곳에서 마주하게 될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당신의 부족에 호소하여 명예와 자부심의 상징으로 당신의 근거지가 어디인지 실제로 보여주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도 흔한 일입니다.

바울은, 만약 그의 부족적 기원을 자랑할 사람이 있다면, 나는 베냐민 지파 출신이라고 말합니다. 베냐민 지파는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저는 히브리인 중 히브리인을 언급했고 그것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특권에 대해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바리새인입니다. 그 생각을 붙잡아 두십시오. 내가 이것이 무슨 뜻인지 말해 드리겠습니다. 바울은 말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와서 진정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실제로 방해할 뻔뻔스러움이 있다고 말한다면, 그들의 열정과 열의는 내가 한 것과는 결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십시오.

그는 열렬한 박해자였습니다. 그는 그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그의 이야기를 알고 있거나 기억하십니까? 저는 이 사람의 인맥에 대해 항상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바리새인으로서, 타르수스에서 자란 사람은 자신을 바리새인이라고 부르는 랍비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을 시리아까지 쫓아갈 국제 허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 그때 그는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러자 열렬한 박해자가 바울, 왜 나를 박해하느냐고 말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는 그 비난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들었습니다.

그의 삶은 반전되었다. 이제부터 그는 그의 언어에 새로운 어휘인 은혜를 도입할 것이다.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는다.

빌립보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려고 온 사람이 있다면, 바울은 그들에게 상기시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명예의 상징, 자랑할 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들에게 알려라고, 그리고 내가 열렬한 박해자였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는 그들보다 더 많은 것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와서 율법에 따라 의롭다고 말한다면, 나도 그 평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십시오.

그리고 나는 그것에 대해 자랑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나를 아는 한, 그들은 실제로 율법에 대한 의로움에 관해서는 내가 의롭고 흠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와우.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베냐민 지파 출신이라고 말할 때, 그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지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의 지파 출신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180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빈센트의 이 인용문, 1897년 해설, 그리고 국제적 비판 해설 시리즈를 좋아합니다.

그는 베냐민이 야곱의 사랑하는 아들의 아들이라고 썼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에게 첫 번째 왕을 주었습니다. 이 지파는 르호보암이 분리할 때 유다에게 유일하게 충신했습니다.

유다와 함께 형성된 또 다른 망명의 귀환은 팔레스타인의 새로운 식민지의 핵심이었습니다. 이 부족은 항상 군대에서 가장, 미안하지만, 가장 명예로운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따라서 D. Benjamin의 전투 구호가 생겼습니다.

열두 족장 중에서 베냐민만이 약속의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푸림절에 기념된 위대한 국가적 구원은 베냐민 사람 모르드개 덕분이었습니다. 바울의 이름인 사울은 아마도 베냐민 왕인 기스의 아들에서 따온 것 같습니다.

그래도 바울은, 미안하지만, 신약에 나오는 세 명의 바리새인 중 한 명입니다. 다른 두 명은 니고데모와 가말리엘입니다. 서기관과 공관복음서와 함께, 작가들은 바리새인을 의롭고, 꼼꼼하고, 때로는 이중적이라고 묘사합니다.

바울은 의롭다고 주장하며 들어오는 사람들을 비판할 것입니다. “나는 바리새인이었고, 그렇게 의로울 만한 모든 이유가 있었다. 또는 그 정도의 의로움을 주장할 만한 모든 이유가 있었다.” 이 글을 마무리하면서, 유명한 역사가와 그가 바리새인들에 대해 한 말을 상기시켜드리겠습니다. 바울은 내가 자랑할 만한 자격이 있다고 말합니다. 요세푸스는 바리새인들이 비열하게 살고 음식의 진미를 멸시하며, 이성의 행동을 따르고, 그것이 그들에게 좋다고 규정하는 것을 그들은 행하며, 그들은 이성이 실천을 위해 지시하는 것을 진지하게 준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또한 나이가 많은 사람들, 다시 말해 연장자들에게 존경심을 표하며, 그들이 도입한 어떤 것에 대해서도 그들을 반박할 만큼 대담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또한 영혼이 불멸의 엄격함을 가지고 있다고 믿고, 부활을 믿으며, 땅 아래에는 이 세상에서 덕행과 사악함으로

살았는지에 따라 보상이나 처벌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 바울이 자신이 흠이 없다고 말한 이유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신성한 예배, 찬양, 희생에 대해 무엇을 하든, 그들은 그들의 지시에 따라 그것들을 수행하는데, 그 도시들은 그들의 삶의 행동과 담론에서 그들의 모든 덕행으로 인해 그들에게 큰 증거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했을 때, 알다시피, 나는 바리새인이었고, 나는 이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여러분을 속이지 못하게 하십시오.

글쎄요, 그는 경계하라는 부름에서 여러분이 이 모든 개들, 육체를 훼손하는 자들, 악한 일꾼들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에 주의를 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참된 할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자랑할 만한 것에 자신감이 있다면, 바울은 내가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바울의 말씀을 읽으며 세션을 마치겠습니다.

나 자신도 육체에 대한 확신을 가질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육체에 대한 확신을 가질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더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팔일째에 할례를 받았고, 베냐민 지파에 속했으며,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으로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고, 율법에 따른 의로움으로는 흠이 없었습니다. 다음 강의로 돌아올 때, 그가 이 주장을 펼치면서 이 문제를 더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손해로 여겼습니다. 사실, 나는 모든 것을 손해로 여깁니다. 나의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의 뛰어난 가치 때문입니다. 그를 위하여 나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쓰레기로 여깁니다.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고, 성령으로 경배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빌립보 교회의 욕망, 야망, 추구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경계하라는 부름에서 그들은 위협이 현실이기 때문에 눈 하나 깜빡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위협 속에서도 순종을 붙잡고 육체가 강요하거나

가져오는 모든 것을 비난할 때, 그들은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강의를 따라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아오면 바울이 이것을 어떻게 발전시켰는지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바울 자신이 이 신자들이 따라야 할 모델입니다.

그가 지금까지 준 네 가지 모델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 그리스도를 교회의 모델로 주었습니다. 그는 디모데를 교회의 모델로 주었습니다.

그는 에바프로디도를 교회의 모델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자신이 순종의 모델이며 육체의 것들을 비난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함께 배우는 것을 계속 즐기도록 합시다 .

저희와 함께 공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기는 Dan Darko 박사와 그의 감옥 서신에 대한 강의 시리즈입니다. 여기는 세션 14, 경계하라는 부름, 빌립보서 3:1-6입니다.